

## 19. ICT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확보

WTO 체제 출범 이후 시험인증 관련 정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감소하고 민간으로 점차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전에 국가에서 규제하던 부분을 기술 분야별로 사업자나 제조업체, 시험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글로벌한 조직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함으로써 제품의 시장판매를 위해서는 시험결과를 받아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구조로 변하였다. TTA가 시험인증 업무에 첫발을 내딛은 2000년대 초반, 국내 제조업체들은 국내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인증기관이 없어 해외에 나가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TTA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각 분야에 발 빠른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확보로 우리 ICT산업의 경쟁력을 배가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 소중한 디딤돌을 놓았다. 앞으로도 TTA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한결 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기술·시장 변화에 맞서 신규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 정보통신 분야

2000년도 초반 국내 ICT산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국제적 공신력을 지닌 시험인증기관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의 공인인증시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이는 적잖은 금전적·시간적 비용 부담을 초래해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렸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TTA는 국제인증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마침내 2003년 5월 블루 투스 SIG로부터 세계에서 23번째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TTA 최초의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이었다. 이후 2004년에는 당시 세계 이통통신을 양분하고 있던 CDMA, GSM폰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취득했으며, 2005년 IPv6, 2006년 와이브로 단말기, 2008년 USB 2.0 분야 등에 지속적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을 확보해 나갔다.

2010년대 들어 TTA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확대를 위한 노력은 다양한 근거리무선통신과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무선전력전송 등으로 대상 분야가 더욱 확장되었다. 이 중 2012년 USB-IF로부터 취득한 USB 3.0 제품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TTA의 정보통신 시험인증 역량이 글로벌 수준에 올라섰음을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됐다.

이후에도 TTA는 2014년 CCC(Car Connectivity Consortium)의 미러링크 애플리케이션, 2016년 USB 표준충전 장치(Power Delivery)와 USB Type C, AirFuel 공진기 제품, OCF IoT 플랫폼, 2017년 UHD 모바일 단말·3D오디오(MPEG-H) 제품에 대한 자격 등으로 그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갔다.

### 소프트웨어 분야

정보통신 분야에 비해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능이나 성능, 품

질 측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인증의 종류가 많지 않다.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실에서는 폭넓은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TTA는 국제 표준이 마련되어 있는 보안 분야의 CC인증을 시작으로, 기반소프트웨어·컴퓨팅 장비 신뢰성 및 성능 분야의 TPC·SPC·SPEC, 사용자 식별·인증 분야의 FIDO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확보함으로써 관련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CC인증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한 TTA는 같은 해 10월부터 정보보호제품 보안성 평가(CC평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CC인증 시험서비스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정보보호제품 개발업계 환경은 매우 영세했으며, 국내 정보보호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국내 중소 정보보호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TTA의 의욕적인 서비스와 컨설팅 지원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TPC·SPC·SPEC은 기반 소프트웨어·컴퓨팅 장비 제품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 공인 시험인증규격(표준)이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벤더들 위주의 시

### ●국내외 시험인증서비스



험인증 규격과 높은 성능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국내 관련기업들은 기술적·언어적 장벽을 뛰어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TTA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 제품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국제 공인 성능 위원회 중 가장 높은 공신력을 가지 TPC의 준회원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2017년 3월에는 TPC 정회원사로 승격, 같은 해 5월에는 국내 최초로 국산 제품에 대한 TPC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이와 더불어 TTA는 SPEC 준회원사(2017년 7월), SPC 정회원사(2018년 2월) 지위를 함께 갖춤으로써 기반 소프트웨어·컴퓨팅 장비 제품 전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온라인 환경에서 기존 패스워드 방식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사용자인증이 필요하게 되면서 생체기반 사용자 인증 기술 FIDO(Fast Identity Online)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TTA는 2017년 6월 세계 최초의 FIDO 공인시험소로 지정받음으로써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업체와 시스템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FIDO 생체인식, 보안성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국내 관련기업들이 차세대 사용자인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